

02 보도 새로워진 학사제도

03 심층보도 감사제도를 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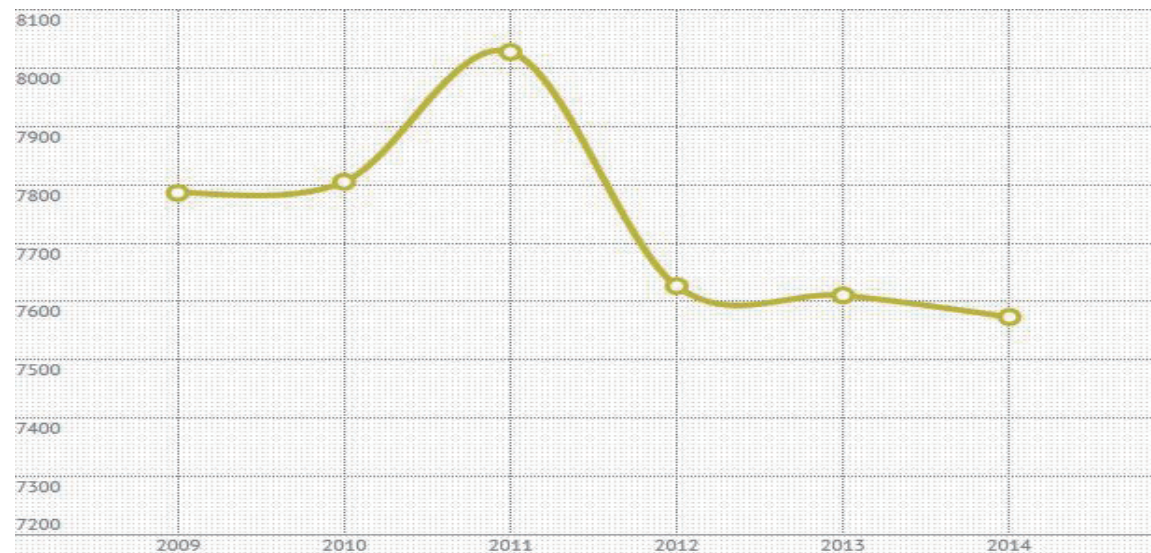
04 사회 '베이비 박스'를 찾아가다

06 사람사 정연 작곡가님을 만나다

07 학술 왜 카페에서 더 집중이 잘될까?

## 2014년도 등록금 0.5% 인하

법 개정에 따른 편입학생 감소  
약 20억원의 예산 감축 진행  
학교 측, 교내 부서 운영경비  
절감 노력 보여



**등록금 인하**  
지난 1월 20일 이사회와 학생회 그리고 학교 측이 최종적으로 협의해 등록금을 0.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0.5%의 인하율은 총 5번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따른 단대별 등록금은 인문/사회과학 3,239,000원(0.5% 인하 16,000원), 예술대학 4,363,000원(0.5% 인하 22,000원), 공과대학 4,265,000원(0.5% 인하 21,000원)으로 결정됐다.  
등록금 결정과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록에서 알 수 있다. 등심위 회의는 총 세 번으로 1

차 회의에서는 14년도 가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등록금심사위원회(교직원 2인, 학생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2차 회의부터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율과 법정부담금에 대해 논의하여 등록금이 결정됐고,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2014학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장영우(기획협력팀) 팀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편입생 모집인원에 대한 법 개정(일반편입 공석의

80%에서 15%로, 학사편입 공석의 5%~2%로)으로 약 20억원의 예산 감소가 발생했다"며 "또한 수험생이 줄어들면서 입학생 또한 적어지고 있다. 예산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실정에 맞추기 위해선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사회적분위기, 대외적 실정을 반영해 0.5%를 인하하게 되었다.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절약을 위해 각 팀의 운영 경비중 소모성경비 10%~30%를 강제

적으로 감축·조정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에 의명을 요구한 A학생은 "등록금이 인하된 것은 좋다. 하지만 인화된 등록금이 학생들의 수업환경, 교수들의 강의환경 그리고 학생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팀장은 "등록금 인하에 따라 재정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복지나 교육부분의 비중을 줄일 생각은 없다"며 "각종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면 많은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등심위에 참여한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0.5%인하 외에 0.5%의 금액을 '교내 장학금 및 학생지원비'로 추가 지원 받기로 했다. 0.5%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학생 대표들과 논의 후 밝힐 예정"이라고 자신의 메아리에 등심위 결과를 게시했다.

**등록금 결정은?**  
위 표를 보면 등록금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등록금은 3번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2번의 등록금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회의는 기획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 기획전략팀장, 총학생회장, 총대의장, 졸업준비위원장, 총동문회 사무총장,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제재인원 9명이 모여 실시했다.  
등록금 결정과정에 대해 장영우 팀장은 "14년도 등록금을 선정하기 위해서 13년도 11월 중순부터 각 팀에게 사업계획을 받는다. 각 팀에 사업계획 예산을 총합하면 항상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축·조정 후 정확한 등록금 결정을 위해 학생회 대표들과 같이 등록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답했다.

### 우리학교 감사제도의 현주소

뉴스에서 보는 공무원사회와 어느 재단의 횡령사건은 비단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대학사회에서도 만연한 횡령사건. 학생회의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술한 감사제도에 있었다. 우리학교 역시 전 총학생회장의 횡령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전 총학생회장이 횡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제도의 개혁은 새로운 총학생회가 건설되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늘 제기되는 사안이었다. '왜 감사제도를 개혁하지 않느냐, 왜

학생자치기구는 외부감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대학사회는 헛바퀴를 돌 듯 학생기구 횡령 사건과 사건무마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의 신뢰약속으로 반복되어왔다. 학생들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 구성원들은 매해 바뀌었으며 책임을 묻는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성대학교의 감사제도는 어떤지 취재했다.

>>3면에서 계속

### 아기들이 버려지는 상자 '베이비 박스'를 아시나요?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 '베이비 박스(Baby box)'. 하지만 국내에서 베이비 박스에 대한 찬반논란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 베이비 박스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이다. 영아유기로부터 최소한 아기의 생명과 건강이라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 박스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 박스를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

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곳도 없다.  
한편, 앞서 설명했듯이 국내에서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아기의 안전을 지키는 베이비 박스의 취지는 좋지만,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를 직접 찾아가보고,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관련해 영아유기 문제를 살펴보고왔다.

>>4면에서 계속

### 정정합니다.

지난 486호 2면 동정란에서 (박재홍(무용학과) 교수 박 교수는 지난 1월 17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했다.)를 (박재홍(무용학과) 박 교수(센트럴발레단은)는 지난 1월 17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호두까기인형'을 성황리에 공연했다.)로 정정합니다.

단대	1-3학점(수업료 1/6)	4-6학점(수업료 1/3)	7-9학점(수업료 1/2)	10학점 이상(전액)
인문/사회	540,000	1,080,000	1,620,000	3,239,000
예술	727,000	1,454,000	2,182,000	4,363,000
공과	711,000	1,422,000	2,133,000	4,265,000

▲단대별 수업료이다.

## 2014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율 56% 기록

### 지난학과와 비교해 소폭 상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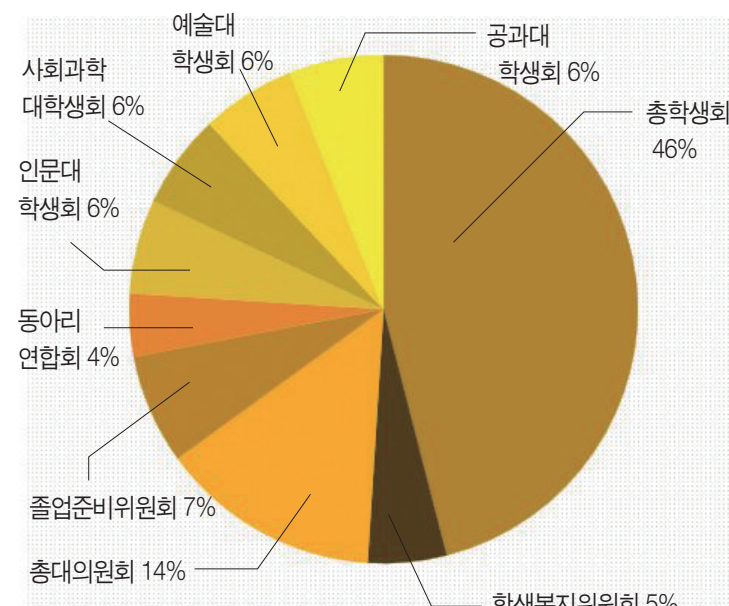
2013학년도 1학기까지 필수납부였던 학생회비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선택납부로 변경되었다. 학생회비 선택납부와 관련된 공문은 2007년부터 교육부에서 매해 전달했다. 학교 측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회비 선택납부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한 학기 미루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회비 선택납부제를 실행했다.  
이번 1학기 학생회비 납부율(3월 10일 전산 기준)은 등록금 완납자 6,148명 중 3,457명이 납부해 약 56%를 기록했다. 이번 학기 교내 재학생은 6,777명이며 분할납부자 629명을 감안해도 학생회비 납부율은 5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납부제를 처음 실시한 작년 2학과와 비교하면 학생회비는 등록금 완납자 6,726명 중 2,782명이 납부해 41.36%(8월 전산 기준)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작년 재학생은 총 6,890명으로 이번 학기와 비교하면 약 100명의 차이가 난다. 100여명의 차이가 있어도 이번 학생회비 납부율은 작년 납부율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우리가 납부한 학생회비는 어디에 쓰일까? 학생회비는 각 공개기구(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와 단대학생회(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가 행사 및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검토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학생회비에서 사용하게 된다.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행사로는 우리학교 축제인 '대동제',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인 '낙산제전'과 각 단대학생회가 주최하는 '단대제전'이 있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와 단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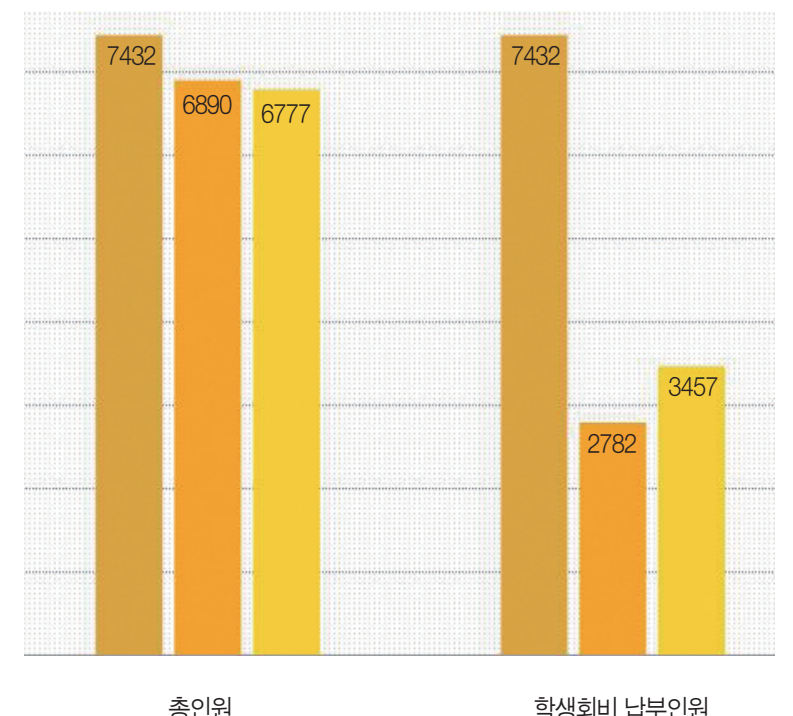
사업으로는 아시배부, 프린트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있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공개기구 및 각 단대의 복지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학생회비는 어떻게 배분되었을까? 2013학년도 1학기에 납부된 금액은 74,320,000원이었다. 이 금액은 총학생회 46%, 학생복지위원회 5%, 총대의원회(감사위원회 포함) 14%, 졸업준비위원회 7%, 동아리 연합회 4%, 인문대학생회 6%, 사회과학대학생회 6%, 예술대학생회 6%, 공과대학생회 6%으로 배분되었다(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였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학기에 줄어든 학생회비로 학생자치기구들이 행사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정 기자 hjct757@hansung.ac.kr

### 2013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배분배율



### 총학생회비 납부명수



▲2013-2학기는 8월 전산기준, 2014-1학기는 3월 10일 전산기준이다.

# 새로운 학사제도 도입 - '학점이월제, 필수이수학점 등'

학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우리학교 역시 새로운 계획을 짜고있다. 바로 이번 학기부터 실시되는 학사제도들이다.

##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 학점이월제

학점이월제는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학점이 작아 잔여학점이 발생할 시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중집(학사지원팀) 차장은 "학생들이 2, 3학점의 강좌를 수강하기 원하지만 과목의 학점단위로 인해 남은 학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잔여학점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학점이월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직전 학기의 성적이 4.0이상, 조기졸업대상자, 학·석사 연계과정자처럼 별도로 초과취득이 가능한 사람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타 대학에서 과건 및 교환 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학점은 소멸 및 제한이 있다. 이월된 학점은 일부만 사용하고 남더라도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학기를 초과해 등록할 경우에도 이월학점이 자

동 소멸한다. 또한 자퇴나 제적 시에도 이월학점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휴학이나 전과, 유급을 할 경우에는 잔여학점이 소멸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이월해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1학기를 마친 후 2학기에 휴학을 할 경우, 복학할 연도 2학기로 학점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전학기에 최대신청학점 20학점 중 잔여학점이 3학점 남는다면 전과이후에도 학점이 이월돼 총

23학점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수강신청 완료 후 시점으로 잔여학점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강포기기간에 취소한 학점은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봉사활동 학점 등과 같이 수강신청과 무관하게 학기말에 별도로 인정되는 학점은 이월학점 고려대상이 아니다. 단 2014학년도 1학기에 휴학이나 국내외의 학점교류, 인턴십 등의 과정으로 인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

생의 경우, 복학 및 복귀한 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점이 산정되어 그 다음 학기로 학점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학점이월제는 2014학년도 제1학기의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잔여학점을 산정 후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되며 사용가능한 이월학점은 수강신청 내에 수강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은 평균 10명 미만이다. 전장배(학사지원팀) 팀장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상담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상담제도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며 "총장님 말씀처럼 학교는 학생 위주의 교육을 하도록 노력 중이다. 상담제도를 통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가 더욱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14학번 이후로는 필수! - 필수이수학점(상담제도)

필수이수학점은 '입학에서 취업까지'라는 슬로건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취업까지 책임지겠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해당 학생은 14학번부터이며 학기당 1회 이상, 4년 동안 총 8회 이상 교수와 상담을 해야 졸업학기에 일반교양으로 1학점이 인정된다. 단순히 한 학기에 1회 상담을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수와 학생 모두 상담내용을 기록해야 이후 학점으로 인정된다.

현재 학사지원팀이 취업·창업지원팀과 함께 상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한 달 내에 교수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매뉴얼에 따라 학기마다 상담을 해주는 주제가 달라진다. 주로 상담의 내용은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교수 한 명당 배정받은

## 신청학점 이외 학점 취득 - 기타 인정 프로그램

학점이월제, 필수이수학점 이외에 기타 인정 프로그램이 새로 학적(학점인정)에 포함되었다. 기타 인정 프로그램은 실습, 인턴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학점인정이 적용된다. 잉글리시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Open Activity 역시 기타 인정 프로그램에 속하며 참여 시수가 많거나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Open Activity는 교내에서 인정하는 특별 학점이 3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별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취득학점 현황을 필히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성대 기자 hje6757@hansung.ac.kr

“ 단, 모든 학생이 학점이월제 대상은 아니다 수강포기기간에 취소한 학점은 이월되지 않는다 ”



## 간추린소식

### 임용고시 합격자 특강 열려

지난 2월 27일 미래관 DL에서 임용고시 합격자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한국어문학부의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한국어문학부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3, 4학년들과 졸업한 지 1, 2년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김동환(한국어문학부) 교수는 "지금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합격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공부에 대한 노하우도 얻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길 바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작년에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선영(한국어문 02) 졸업생, 올해 합격한 이한석(한국어문 99), 박신영(한국어문 02) 졸업생이 강단에 섰다. 이날 강연자들은 후배들에게 합격수기 및 공부법을 강의했다. 박신영 졸업생은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려는 후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학습컨설팅 실시

교육개발원이 재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2014학년도 1학기 학습컨설팅을 실시한다.

학습컨설팅은 학습진단과 학습코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진단은 학습진단검사를 실시해 현재 본인의 학습활동을 보완하고 개선된 학습전략을 계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습코칭은 학습컨설팅 전문가와 1:1면담을 통해 고취된 학습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선발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1, 2차 각각 15명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학기에 시범 운영되며 1학기 운영결과에 따라 추후 선발인원이 조정된다. 1차는 3월 3일부터 4월 25일부터 활동하며 2차는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활동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 이후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전화, 교육개발연구원(우촌관 3층 종합행정실 7번 창구)방문 등이 있다. 문의는 760-5816로 하면 된다.

### 사회과학대 보궐선거 경선으로 진행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과학대(이하 사대)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기호1번 '연애시대' 신중혁(행정 3) 정학생회장후보, 방가영(경제 2) 부학생회장후보와 기호2번 '청년시대' 손용(경제 4) 정학생회장후보, 박재순(부동산 4) 부학생회장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진다.

이에 맞춰 지난 3월 13일에는 사대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정책간담회에는 참석한 학생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학생들은 후보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지지만 했다. 때문인지 기호1번에 공약인 '새내기 미팅 추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책간담회에서 각 후보는 가장 자신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질문에 기호1번 연애시대는 멘토링사업, 기호2번 청년시대는 취업설명회를 꼽았다.

양측 후보는 3월 11일부터 열띤 경쟁을 펼쳤고, 보궐선거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 2014 하계 해외봉사단 모집

오는 3월 19일까지 '2014 하계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 학생지원팀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단은 올해 17기를 맞이했다. 해외봉사단은 외국에 교육 환경이 낙후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과 노력봉사 그리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활동이다. 해외봉사단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한국문화특기자(태권도 유단자, 사물놀이, 부채춤, 동영상 촬영·편집, 책자편집, 악기연주)를 모집한다.

지난 3월 14일에는 미래관 DL에서 '2013년 동계 해외봉사단 사후보고회'가 열렸다. 동계 해외봉사단은 태국으로 17박 18일간 다녀왔다.

## 故 김의형 박사 31주기 추도식



▲ 한성학원 설립자인故우촌 김의형 박사의 31주기 추도식이 지난 5일 미래관 DL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이희순 이사장을 포함한 유족들과 강신일 총장,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 한국어교육과정 '제19기 앰버서더 결연식' 열려

언어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한국어교육과정은 교육기관 중 하나로 한국어연수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일반적인 한국어·문화 교육,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학업 수행 및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한국어교육과정은 학기수업/앰버서더/외국인한국어말하기대회/문화교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네 가지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한국어과정 봄학기 입학식'이 있었고, 3월 14일에는 제 19기 앰버서더 결연식이 진행됐다. 앰버서더는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어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국어·한국생활·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다.

안윤숙(언어교육원) 강사실장은 "한국어교육과정을 시작하지 10년째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알려주려는 마



음으로 앰버서더에 도전한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받아가는 것 같다.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외국인교과목 교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학교의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어서 한국어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외국 학생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많은 대학교들에 한국어교육과정이 있다. 본교는 앰버서더 외에도 외국인한국어말하기대회와 같은 큰 프로그램들이 많다.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성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에 참여하길 바란다.

신동성 기자 1236077@hansung.ac.kr

# 학군사관(ROTC) 55-56기 모집안내

2014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 모집대상 : 대학 1학년(남학생) / 2학년(남 / 여학생)

■ 지원자격 :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이하인 남·여)

- 학군 제55기(남·여 모두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년별 취득 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매 학년 C학점 이상인자로서 2015년 3월에 3학년(5년제)의 경우 4학년)으로 정상 진학이 가능해야 함

- 학군 제 56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

● 기간 - 2014년 3월 3일 ~ 3월 31일

- 인터넷 ( www.armyofficer.mil.kr)

※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 서류 일제 제출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 Training Corp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입니다.



# 감사(監査)들 하십니까?



## 기획의도

뉴스에서 보는 공무원사회와 어느 재단의 횡령사건은 비단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학교 역시 얼마전 총학생회장의 횡령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전 총학생회장이 횡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새터가 감사의 범위가 아니었다는 것과 영수증 처리과정에서 얼마든지 횡령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일이 아니었다. 대학사회에서도 만연한 횡령사건. 학생회의 횡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술한 감사제도에 있었다. 대학사회의 현 감사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러한 횡령사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자치기구는 왜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외부 감사로 얼마든지 횡령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대학사회는 어쩌서 외부감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외부감사만이 횡령사건에 종지부를 찍는 해결법일까? 현재 우리학교의 감사제도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성대 신문사가 취재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학생자치기구의 허술한 감사제도 학교·총대의원회측 모두 개혁 인식!

현재 교내에는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제도에 따라 매 학기마다 감사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감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총학생회장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사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범위는 매 학기 초 학생자치기구가 사업신청을 해 승인받은 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배된 금액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이다. 그런데 이번 횡령의 주요 부분인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의 감사진행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관행적으로 '새터'는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가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새터'가 진행되는 2월은 전년도 총학생회의 임기에 포함된다. 즉,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인 것이다. 또한 '새터'가 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시시비비를 가

리기 힘들다는 허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감사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국장 임기도 불분명해 만약 문제가 생길 시 책

이에 대해 전민우(학생지원팀) 주임은 "현재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생자치기구가 감사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대의원회와 감사제도를

전 총학생회장 사태 전, 학교 측에서는 공동체, 학생복지위원회 사업 등 학생자치기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회비 내에서 지출한다면 학생자치기구들의 자치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는 학생자치기구가 자치회비 내에서라도 물건 구입 및 사업을 진행한다면 관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학교는 감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가 진행하는 사업의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진행하는 2014학년 신입생 기념품 사업부터 학교가 물품 선택, 업체 선정, 업체 접촉까지 학복위와 함께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전민우 주임은 "학교에서는 학생자치기구의 시스템이 보완되었다고 여겨질 때까지 협력할 예정이며 전 총학생회장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학교 측, 현재 감사제도 개선에 학생회와 협력  
총대 측, 경력있는 감사국장 선임

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3학년도만 해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한 감사국장은 휴학을 했고 하반기 감사를 진행한 감사국장은 올 2월에 졸업했다.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원정효(산공 4) 총대의장 역시 "감사국장은 앞으로 경력에 있는 학생으로 위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현 총대의장에게 감사제도에 대해 묻다

학생 감사제도에 대해 원정효(산공 4) 총대의장은 "감사규칙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감사회계규칙'에서 '제2조 사업/공약감사' (2)사업/공약감사 시행규칙 제4항'을 보면 '사업 계획함에 있어 자치기구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의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그 뜻의 정의를 명확하지 않다.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규칙들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규칙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묻자 그는 문제시 되는 안건들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아 개정 혹은 삭제하고, 학교 측(학생지원팀)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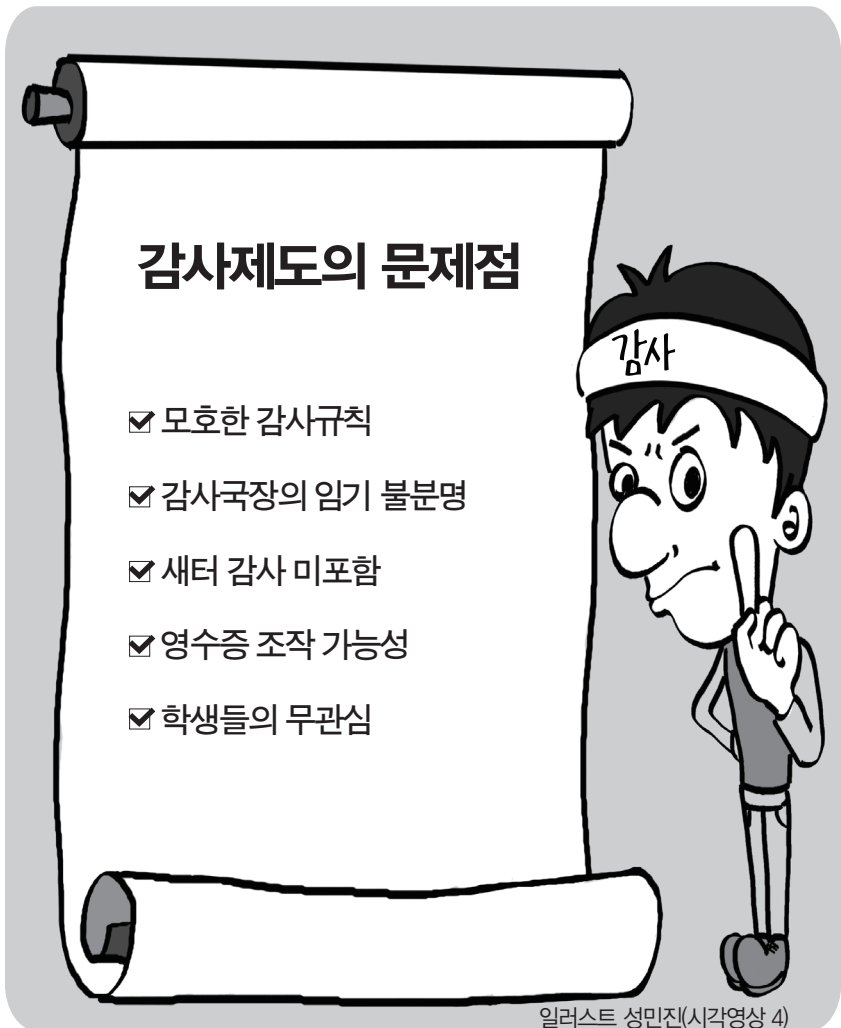
학생 감사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 내에서 자체감사가 효과적일까'하는 의문도 나온다. 이에 그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 측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외부 감사비용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외부감사보다는 자체적인 감사제도 강화를 선택하게 됐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감사에 참

여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답했다. 외부감사 비용(분고 법인감사 기준)은 2,000~3,000만원이다. 학생자치기구의 경우 그 비용은 더 적을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비는 전액납부 시 약 7,000만원, 선택납부 시 약 2,000~3,000만원이 걸린다.

감사국장에 임기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감사국장이 휴학을 하는가 하면 졸업한 후 임기를 마친 감사국장도 있었다. 원정효 총대의장은 "감사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이다. 감사위원회는 총대의장을 필두로 최종책임은 총대의장이 진다. 감사국장은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미비로 인한 격정에 그는 "기존에는 간이영수증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현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영수증의 기준으로 하여 영수증 위·남조를 막을 것이다"고 답했다.



### 감사제도의 문제점

- ☑ 모호한 감사규칙
- ☑ 감사국장의 임기 불분명
- ☑ 새터 감사 미포함
- ☑ 영수증 조작 가능성
- ☑ 학생들의 무관심

## 진짜 '감사(監査)'합니다

회계감사란 작성한 회계기록을 독립적인 제3자가 검토해, 그 기록의 적응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계 감사는 주로 허위와 부정을 적발하는데 그 주를 두고 있다. 회계감사에도 종류가 있다. 시기와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정기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수시감사가 있다. 감사자가 내부 구성원인 경우는 내부감사, 제3자인 외부인의 경우는 외부감사이다.

이러한 감사에는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재정경제원령 제968호로 고시된 재무제표감사 증명에 관한 규정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으로 공표된 감사기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진짜' 감사제도 속에서도 횡령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자치

기구의 자체감사는 오죽할까?

공공기관이나 회사 같은 조직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거나, 지속적으로 횡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상시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처방을 한다. 하지만 학생자치기구는 회사와 달리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책임의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에 감사제도의 개혁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새로운 감사위원은 신뢰를 강조할 뿐 허술한 제도는 여전히 있다.

"진짜 감사"를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의 감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단순히 학기말 정기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 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인근대학 감사제도는?

학생자치기구의 감사, 성복구에 위치한 우리학교 주변 타대들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 고려대학교는 학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결산을 심의한다. 고려대학교의 결산보고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도 학생들이 직접 감사위원회를 꾸려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가장 인접한 성신여자대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총학생회의 예산과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의 감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학생회가 학생지원팀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학생회비를 지급받는다. 활동이 끝나면 학생회비를 사용한 곳의 영수증 내역과 잔여액을 학생지원팀에 제출한다. 만약 잔여액과 영수증 사이에 차액이 생길 시에는 총학생회가 현금으로 학생지원팀에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다.

인근대학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없었고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실

학생자치기구 감사제도에 대한 지적은 비단 우리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타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총학생회가 건설되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늘 제기되는 사안이었다. 왜 감사제도를 개혁하지 않느냐, '왜 학생자치기구는 외부감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대학사회는 책 바퀴를 돌 듯 학생기구 횡령사건과 사건무마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의 신의약속으로 반복되어왔다. 학생들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 구성원들은 매해 바뀌었으며 책임을 묻는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자체의 감사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가 있었지만, 학생자치기구는 '자치'라는 미명 아래 그 체계가 허술했다. 학생자치기구는 마땅히 자치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치의 목을 조르는 것은 학교·학생이 아닌 학생자치기구 그 자체였다.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 그만일까? 현실적으로 비용적 문제를 제쳐두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학생회비 선택 납부로 학생회비의 선택 납부로 그 액수가 적은 시점에서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에는 비용적 한계에 부딪혔다. 타대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해, 학생회 자체적으로 의의를 해 특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교내에서 감사를 진행해왔다.

전 총학생회 횡령 사건 이후, 우리학교 감사체계는 변화를 맞았다. 총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감사규칙을 바로잡아 감사체계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애매한 규칙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회 경력자를 감사국장으로 위임해 책임감 있는 감사위를 구성하고 영수증 처리를 확실하게 횡령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지원팀은 역시 학생자치기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지난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 횡령 사건에 있어서 총대의원회와 학생지원팀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다. 이번 감사제도의 개혁이 학생과 자치기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 내·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감사

학생자치기구의 감사제도와 달리 우리학교의 감사제도는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는 내부감사와 외부 감사를 진행한다.

내부감사의 대상은 우리학교에 소속된 모든 부서이다. 우선 내부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매학기에 1번씩 연 2회 실시하며 수시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부서 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즉시 실시된다. 감사는 실사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항에는 서류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사감사는 직접 피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면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서류감사는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해 실시되는 감사를 뜻한다.

감사는 대외협력팀에서 진행하며 감사범위는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 사항 ▲각 부서의 행정업무 사항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다. 김지현(대외협력팀) 과장은 "행정위주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감사는 감사 전 총장님에게 계획보고를 한다. 계획보고서에는 감사실시기간, 감사원의 구성, 감사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심의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감사부서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로 한다. 김지현 과장은 "감사위원은 교수 위주로 구성되며 한 단대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고 전했다.

감사부서는 감사가 끝난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가 끝난 후에는 총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감사가 끝난 후 지적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한다. 시정요청을 받은 부서는 시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시정결과보고서는 감사부서를 경유해 총장에게 승인받은 후 법인에 전달한다.

외부감사는 회계 부문에서만 진행되며 외부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따른다.

이처럼 학교는 법인체로서 내·외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학생자치기구 역시 법인체는 아니지만, 내부 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하기에는 작년부터 실시한 학생회비 선택납부로 인한 비용문제가 걸림돌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회는 보다 현실적인 자치기구의 자구책을 고민해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제정: 어떤 안전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 도망가는 부모들, 남겨지는 아이들

## 논란 속의 베이비 박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버려진다

생명은 언제나 위대하고 그 자체로 축복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늘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게 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혹은 그 방법을 몰라서,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영아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베이비 박스(Baby box)'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베이비 박스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로서, 영아유기로부터 최소한 영아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 박스가 유일하다. 2009년 12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72명의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에 남겨졌다.

###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직접 찾아가보다"

국내 최초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았다. 관악구 한 골목길에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는 평범한 교회라기 보단 주택에 가까웠다. '주사랑공동체의 집'이라고 적힌 간판 밑에는 작게 '아기 놓아두는 곳'이라고 적혀있었다.

간판의 화살표를 따라가보니 담벽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 박스가 눈에 띄었다. 손잡이를 이용해 여단을 수 있었고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다. 교회의 허락 하에 박스를 열어보니 내부에는 담요가 깔려있고 '출생일을

꼭 적어주세요'라는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정영란 전도사를 '엄마'라고 불렀다.

### "베이비 박스에 왔다가 마음 고치는 부모들도 있어"

누군가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넣으면 벨이 울린다. 벨소리를 듣고 교회 사람이 짚사게 달려나가면 부모는 금새 사라지고 없다. 교회 앞의 경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것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는 도망가는 부모를 최대한 붙잡아 설득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아두려 왔다가도 상담을 진행하면 부모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시 아이를 데려간 경우도 꽤 있다.

정영란 전도사는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초기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다급한 사람들이 정부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부터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후에도 후회 끝에 다시 찾으러 온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제까지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372명의 아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다시 친부모 곁으로 돌아갔다.

### "베이비 박스, 영아유기를 조장한다?"

그러나 베이비 박스가 오히려 역으로 영아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최근 유기된 아동의 대부분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버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개정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출생후 최소 7일 후에 입양동의를

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의 취지는 단순히 입양아동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던 기존 법에서 벗어나 입양되는 아동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등록하려면 친부모의 명의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즉,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이 남게 된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미혼모인데 이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림으로써 입양기관 등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입양등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이

들에게 입양기관 등록마저 좌절된다면 영아유기, 불법입양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아래의 표는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로 서울시내 버려진 아이들의 현황이다. 2010년에는 21명, 2011년에는 31명이 버려졌지만 개정이 예고되었던 2012년 초반기에만 28명이 버려졌다. 개정 이후 4개월 동안은 41명이 버려졌다.

2012년에 버려진 아이는 총 69명으로 전년도 31명에 비해 2배이상 된 것이다. 2013년도 역시 유기아동 수는 폭증세가 이어졌다.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아기의 수 또한 개정 이후 3배이상 늘었다. 아기와 함께 남겨진 110개의 편지 중 58개에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적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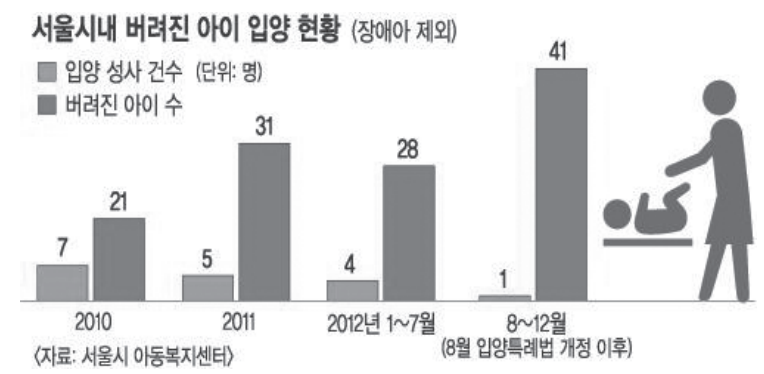
즉, 베이비 박스가 영아유기를 부

추했다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 때문에 늘어난 유기아동을 베이비 박스에서 받아준 셈이다. 과연 베이비 박스만 없었더라면 그 많은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정부에서는 베이비 박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버려지고 있다.

단순히 불법으로 간주해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들이 마련되어야하는 시점이다.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베이비 박스에 남겨진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길바닥에 유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가.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직업, 경제와 통(通)하다

## 취업준비생이 알아야 할 연봉의 의미

회사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준은 연봉이다. 많을수록 좋은 '돈'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앞 사람보다 높은 연봉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측면이던지 간에 '연봉' 자체가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앞으로 평생 동안 의지하게 될 연봉이 알려주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기준으로서의 연봉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먼저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살펴보자. 경제학에서 연봉은 '임금(wage)'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수준은 주로 노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임금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근로

자들의 생산성이다. 높은 생산성은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후하게 주는 회사를 찾기에 앞서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라면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지도 모르겠다. 경쟁력이 전무한 사회 초년생에게 있어 자신의 생산성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은 소위 말하는 '스펙' 뿐인데, 이 말대로라면 스펙이 낮으면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현실 속의 기업들은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승진 때마다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임금의 결정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하

루아짐에 두, 세배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이론이 '효율 임금'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기업이 먼저 제시하면 근로자의 이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고되지 않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향간에 알려진 것처럼 기업이 무조건 근로자들을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의 발전을 기다리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역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업채용절차의 본질은 동반자를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임금이론을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의 조건은 당장의 높은 스펙이

아니라 회사에 충성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어떤 전략으로 채용절차에 임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임금은 단순히 다달이 받게 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잠재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척도로서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회사가 나에게 갖는 기대치를 만족시켜야만 이 선순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연봉이 높다고 알려진 회사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회사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연봉'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 사회를 보다

## 대학청소노동자 파업, 대학은 나몰라라

지난 3일 서울시내 10여개 대학의 비정규직 청소·경비·주차 노동자(이하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상향과 대학의 적정고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일부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은 장기파업을 이어갔다. 현재는 경희대,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이 지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잠재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척도로서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회사가 나에게 갖는 기대치를 만족시켜야만 이 선순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연봉이 높다고 알려진 회사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회사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연봉'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가장 더러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적다. 또한 마땅한 쉼터조차 없으며 학교가 용역업체를 바꾸면 언제든 해고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용역업체 측과 집단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좀처럼 달라진 것은 없다. 원청인 대학이 아닌 하청업체인 용역업체와 협상하다보니 노조의 요구안은 매번 파행을 겪은 것이다.

용역업체는 애초에 대학에서 사용료를 적게 지급하므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가 힘들다. 또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일감을 잃는 입장인 대학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즉, 결정권은 대학에서 쥐고 있지만 교섭은 용역업체와 하므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열쇠를 쥐

고 있는 대학들은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구조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청소노동자 또한 명백한 대학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학교 곳곳에서 청소노동자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친다. 아니, 우리에게 '청소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이 있는 곳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일인 것을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신동석 (행정 12)
- 취재부 부장
- 현정은 (무역 12)
- 취재부 기자
- 한재원 (행정 12)
- 편집국장
- 오그림 (무역 12)
- 문화부 부장
- 김근영 (행정 12)
- 사회부 부장

## 한성대 신문사 제39기 수습기자모집

언론의 중심 한성대 신문사입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학내 소식과 사건·사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사회이슈·문화비평·학술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희 한성대 신문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발로 뛰는 열정, 다음은 당신입니다.

- ※ 선발대상 : 14학번 재학생
- ※ 모집인원 및 분야 : 00명,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 신청방법 : 신문사에서 지원서 작성 후 면접
- ※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동안
- ※ 활동혜택 및 지원 :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임기완료 후 기자 인증서 발급, 명함 지급
- ※ 문의 :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 Tel.02-760-4186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1236047@hansung.ac.kr

# 컨설턴트를 꿈꾸는 여러분께



교단에서

유연우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유머나 만평에는 그 나름대로의 진실이 있듯이 컨설턴트라는 직업에도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컨설턴트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컨설턴트’는 사람, 조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있지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관리자 또는 스태프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계약이라는 주체에 의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컨설턴트에게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체계는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사실 컨설팅 회사들은 컨설턴트를 선발함에 있어 공개채용방식보다는 선호이론(좋은 대학 출신들은 당연히 일을 잘할 것이고, 사회에 진출한 이들의 선후배들을 통해 컨설팅 프로젝트의 수주가 쉬워질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추천방식을 통해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성장과정도 조직의 선임 컨설턴트들과 일을 수행하면서 도제(徒弟)형식으로 배우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어 선망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가 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성대학교에는 서울지역에서는 유일하게(전국적으로도 불과 3-4개 정도) 기업의 니즈와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컨설팅 전문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국내 컨설팅 회사의 합작법인에 속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들이 참여하고 있어, 유능한 컨설턴트로서 성장하고 원하는 컨설팅 회사로 진출하는데 다른 대학 재학생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선망하는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가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행히 훌륭한 컨설턴트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양

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Practice 수업기회와 현장 학습 기회(확정인정 인턴십 과정 등)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컨설턴트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하는 사회는 네트워킹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트워킹이 부족한 사람은 역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트워킹이 뛰어난 사람을 앞서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원의 석·박사 교육과정에 재학 중 이거나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허울뿐인 복지제도



기자수첩

현정은 기자  
(무역 3)

지난 2월 말,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들려왔다. 바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판하고 동반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12년 전에 사망하면서 큰 빚을 남기고 어머니 박 씨가 생계를 책임졌지만 한 달 전쯤에 넘어져 일을 그만둔 생활고가 심각해졌다. 또한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지만 병원비도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 세 모녀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70만원을 남겼다. 그들의 사망 이후 빈소 역시 차려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들의 사연을 들은 누구나 울컥했을 것이다. 누구나 이들을 보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무릇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

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모녀와 같은 경우에 2014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329,118원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월세 50만원에 큰딸의 병원비까지 포함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분별 초과할 것이다. 또한 큰 딸이 지방을 알고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

문에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모녀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은 수급권자로 지정받기에 충분하지만 단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100만 명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미흡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2010년 150명, 2012년 139명, 2013년 135명으로 점점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이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복지제도가 개선되어 다시는 세 모녀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푸른 불꽃



낙산에 올라

최준수 학생  
(한국어문 2)

3월, 대학가엔 푸른 불꽃이 핀다. 누가 말할 새도 없이, 불꽃은 춘삼월의 환영식을 거하게 치러낸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그렇게 피어난 꽃들은 봄과 함께 만개한다. 말 그대로 춘삼월은 불꽃놀이와 향연이다. 화려한 봄날, 화려하게 시작되는 불꽃놀이. 삼월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자면 편할까.

하지만 불편하게도, 불꽃놀이는 한 순간이다. 불꽃은 찰나에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삼월의 푸른 사랑도 이와 같다. 대개의 막 불씨를 틈 불꽃들은 제 명맥을 발화의 순간과 함께 잃고 만다. 결국 남는 건 한 줄의 재, 또 자신의 한숨뿐이게 되는 것이다.

삼월의 애정을 말로 하자면 ‘타인에 대한 관심뿐인 사랑’이라 표현하고 싶다. 저 사람

은 무얼 좋아할까, 무얼 하고 싶어 할까 고민하는 것, 즉, 나를 배제한 타인에 대한 무한한 관심, 그리고 배려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랑이 실존하기에 우리의 현실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이 있다. 잔혹한 예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TV 속 드라마 주인공이 아닌, 그저 ‘어린 학생’에 불과한 것이다.

대체로 삼월에 시작하는 사랑은 불을 피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를 가진다.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생각은 일절 없이, 순간의 황홀함을 위하여 끝없이 열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베풀은 곧 빈곤이며 사치

이다. 사랑에 있어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내 자신이 사랑을 시작하기에 앞서 있는 것은 없다, 너무 성급히 불을 피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한 순간의 일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어가 있다. 사랑에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그에 앞서 나를 알아야 한다. 아직 푸른 불꽃을 피운 사람이라면 이 성어를 꼭 다시 한 번 읊어보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나는 장담한다.

# · 사 설 ·

## 우리 대학의 구조 개혁과 특성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교육부는 올해 1월 27일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 조정이 지방대 죽이기라든지, 평가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대학 구조 개혁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지, 구조 개혁은 교육부의 강요가 아닌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지 등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전문대를 포함하여 56만명의 입학 정원 외 고교 졸업생이 63만명인 올해와는 달리, 2023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39만명으로 줄어들고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교육부에 떠밀려야 하는 대학의 구조 조정의 광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학 구조 조정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에 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진열대에서 치우든지 아니면 외진 구석으로 배치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대거 진열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상례이다. 실패는 좋은 대학 구조 개혁의 핵심은 경쟁력 없는 교육 과정의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구조 개혁에 앞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 무엇인지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의 센터 한성대학교와 같이 서울 도심에 있다는 피상적인 경쟁력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길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현 시점에서 더욱 아쉬운 것은 대학 집행부의 비전 제시와 학내 구성원 사이의 비전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 개혁과 특성화는 학교 별로 혹은 소수 학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밑으로부터 구조 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밑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학과들 사이의 목표와 비전들이 상충하며, 학과 사이에서 상호 경쟁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향되고 객관화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학과나 교수들은 어떻게 구조 개혁에 동참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하다. 비전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로 교육부의 CK-2 정책이 떠밀려 생색내기식의 구조 조정과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걱정스럽다.

구조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조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의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학과 통폐합이 일어나고, 과목이 없어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강도 높은 수업 준비와 취업, 산학협력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몇 배 더할 각오를 해야 한다. 희생과 고통은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있어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땀과 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다급한 시점이 왔다. 우물쭈물 눈치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우리 대학은 서서히 끊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자치활동’과 ‘자기들만의 리그’ 사이에서

지난겨울은 학생자치기구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총학생회와 전 학생복지위원회의 횡령사건과 풍문으로 들려오는 선거조작 의혹까지, 지난 학생회의 일들로 현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신뢰 관계는 안락하진가?

이런 횡령사건 이후 학생들은 ‘총학생회 몇 천은 쉽다더니’ 혹은 ‘학생회 하면 차 한 대 뽑는다더니’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그야말로 학생자치기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바닥으로 추락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대학사회에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갈등은 늘 존재해 왔으며 이 관계는 광장히 편파적이었다. 일방적인 학생회의 비리나 이를 비난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소통하지 않는 학생회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과의 갈등은 다양한 모습의 문제로 나타났다.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

는 학생회와 무엇을 하건 간에 전혀 응답 없는 학생, 이 관계에서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은 자치활동이 아닌 자기들만의 정치활동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이는 모두 학생회의 잘못일까? 흔히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의 주체는 학생회만이 아니다. 감사기구보다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물이 앞질러지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한다. 물론 학생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기구의 자체적인 노력이 우선 되어야한다. 자치기구의 사업에 있어서 감사 결과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행과 추진 그리고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보의 지면, 낙산의 메아리, 자치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 소통하지 않는 학생회와 그들을 꼭 맞잡을 수 있어야한다. 더 이상 학생 ‘자치’기구가 ‘자기들만의 리그’에 그치지 않도록 말이다.

# 캠퍼스 라이프 환상 속 새내기 여러분께



한성인께

이영철  
'한울'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  
(신문 4)

안녕하십니까? 한성인 여러분. 꽃샘추위에 건강관리는 잘하시는지요. 저희는 31대 '한울'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 이영철, 부위원장 정두화입니다. <한성인께>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분을 접하려니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14학번으로 우리 한성대학교에 입학하신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신입생의 추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대학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하면 되니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많이들 들었을 말이죠. 저는 정말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중 대학 생활에 가장 큰 환상이 뭘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 미팅, 소개팅, 파티 등 각종 파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만남은 적극적으로 꾸준히 갖는 것이 저 역시 좋다고 생각하니

많은 인연을 통해 정춘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표는 내가 직접 짜니까 이른 시간 수업은 빠지고 늦잠을 자야겠다'는 환상이 있었는데 이젠 참... 다들 수강신청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졸업여건이다. 필수과목이다. 다 채우고 나면 내가 원하는 시간표? 널널한 공간? 자기 뜻대로 절대 안되죠? 또 휴식 잔디밭에서 책도 읽고 낮잠도 자는 캠퍼스 라이프를 상상하셨나요? 우리 잔디밭에서 누워있으면 누군가 신고할지 모르니 상상으로만 간직하도록 합시다.

이 밖에다 각자 생각하던 캠퍼스 라이프의 환상들도 이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상상하던 생활만을 즐기고 놀기엔 여러번의 막대한 미래가 막대한 앞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

도 모릅니다. '에이 뭘 그렇게 뻑뻑하게 굴어 1학년은 놀아도 돼!' 아니요. 이제는 1학년부터 준비해야하는 시점입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하신 여러분이라면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대학생활을 놓고 즐기지만 할 뿐 아니라 학업, 스펙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알찬 생활을 하시는 새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4년을 보고 설계하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헤쳐나가다 보면 저절로 멋진 한성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학생복지위원회는 전진하는 여러분의 한 발 한 발에 도움이 되고자 학생회의 대표로 누구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 낙산만평

성민진(시각영상 4)



보이지 않는 정보 도둑

내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은 제발 그만!!

꿈의 대화

# “어릴 때 몸을 사리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 정연 작곡가와 이소연 멘티의 꿈의 대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어쩔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지 신기하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프로듀서도 지금의 나와 같은 이별을 겪었던 걸까. 이렇게 나의 마음을 울릴 가져간 노래는 대체 누가 이렇게 잘 만든 것일까. 이번 ‘꿈의 대화’에서 만난 직업은 작곡가도 정연 작곡가 멘토와 이소연 멘티(무역 12)가 만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티: 작곡가로서 어떻게 데뷔를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멘토:** 데뷔하는 방법은 작곡가마다 달라요.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데뷔하기 어려워요. 하나씩 얘기해보자면 주로 유명한 작곡가 아래에서 배우면서 차차 자신의 곡을 준비해요. 연기자나 단역부터 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편곡작업을 위주로 하다가 다른 작곡가와 공동작곡으로 몇 번 같이 작업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내기도 하고요. 드물게는 기획사 공모전에 당선돼서 이름을 알리는 몇 작곡가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곡을 쓰면서 부르는 싱어송 라이터로 활동하면서 기획사에 발탁되거나 노래를 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멘티: 작곡가가 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나요?**

**멘토:** 우선적으로 음악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다루는데 있어 전체를 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지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에 다다르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태도나 자세적인 면에서는 작곡가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직업인만큼 창의적이고 신선한 발상이 요구돼요. 남의 것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죠. 저희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장난스레 얘기하곤 하지만요. 작곡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다 겪는 일이에요.’

**멘티: 작곡 작업을 하기위해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 어느 장비가 가장 중요하고, 어느 것부터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 컴퓨터로 작업하는 만큼 모니터, 스피커, 오디오 카드, 컴퓨터, 키보드도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장비를 꼽자면 모니터, 스피커, 오디오 카드에 신경 썼으면 해요. 교수님이나 전문가 작업실에서는 정말 좋은 노래로 들렸는데 집에 돌아와서 들어보면 별로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장비차이일거예요.

나의 귀에 ‘장비들이 어떠한 소리를 뿜어내 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밸런스가 맞게 모니터, 스피커, 오디오카드를 사용하고 조금씩 수준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특성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의 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론 비싼 장비도 좋지만 계란판을 붙인 다단지의 노력을 하면서 분명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멘티: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일까요?**

**멘토:** 좋은 음악의 기준이 뭐지 아무도 몰라요. 작곡가도 자기가 좋은 음악을 쓸 때까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작곡가나 일반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누군가가 노래를 들었을 때 진정성과 감동을 느끼고 기억에 남는 멜로디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곡이 오래 간다면 바로 이 곡이 좋은 음악이에요. 지금까지 대중에게 사랑받는 히트곡들은 모두 이런 요인들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객관화를 딱 시킬 수 없지만 작곡가는 좋은 음악의 멜로디, 편곡, 가사의 완성도를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노래에 대해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고 보일 수 있어야 해요. 내 새끼가 밖에 나가서도 이뽀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객관적으로 자신의 곡을 보고 체크하는 게 좋겠죠? 좋은 음악은 자기가 들었을 때도 기본이 좋은 음악이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최대치의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음악을 듣고 왜 기분이 좋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혹은 내가 앞으로 음악생활을 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가를요.

**멘티: 앞으로의 신인작곡가에게 요구되는 점이 알고 싶어요.**

**멘토:** 대중음악 쪽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대중들은 R&B나 힙합음악을 좋아해요. 여러 분야의 음악이 주목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세해요. 아이돌 음악도 혹은 음악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도 하고요. 대중이 좋아하는 만큼 작곡가는 힙합이나 재즈 R&B를 다룰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처음 접하는 장르라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지금의 작곡가에게도 필요하고 앞으로 작곡가 지망생에게도요.

**멘티: 음악 시장에서 인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인맥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 가야 좋을까요?**

**멘토:** 멘티 같이 어린 친구들은 대회나 공모전의 기회가 많아요. 다른 20대들과 달리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 동아리나 어디든 음악 할 수 있는 곳을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대학생 때 대회에 나가 아는 사람을 만들고 관계자들과 인연도 맺었어요. 한 유명한 대회에 나간 적

이 있는데 대회 선배들도 많아서 좋은 경력이 됐어요. 모든 분야의 직업에 있어 인맥은 중요하지만 작곡가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기획사 안에 작곡가 팀이 대부분 있기도 하고요. 주로 아는 사람끼리 작업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안하려고 하는 폐쇄적인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교류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죠. 돌아다니는 만큼 인맥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하네 남의 일을 관심으로 지켜보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자기 혼자 음악을 해선 안돼요. 어릴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뜻밖의 인맥과 나중에 함께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자: 현재 대학생인 작곡가 지망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멘토:** 앞서 말했듯이 기회가 있으면 대학생의 특전을 잡아서 누렸으면 해요. 나이가 어릴 때 평가에 몸을 사리지 않고 도전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는 상처 받아도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상처를 털어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연습할 게 있다면 지금 어서 하길 바라요. 작곡가가 꿈이 아닌 학생도 물론이예요. 기본 베이스를 탄탄히 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악기든 오디오편집 이든 노력, 연습은 지금 해야 돼요.

**기자: 멘토님의 앞으로의 꿈, 목표가 궁금합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멘티: 멘토님은 처음 어떻게 작곡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멘토:** 중학생 때 성당에서 밴드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키보드를 치게 됐어요. 밴드 활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가요나 팝음악을 잘 안 듣는 편이라 음악에 대해 잘 몰랐어요. 밴드활동도 재밌고 여러 음악도 듣다보니 재미있더라구요. 그때부터 막연히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곡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교직원을 만나다

## 대학도서관 평가 1위, 학술정보관의 숨은 주역

학술자료팀  
이성민 팀장을  
만나다



학술정보관 2층 안내데스크 옆 곳에 닫힌 문.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 2층 로비를 지나갈 때 마다 궁금했을 것이다. 학술정보관의 방대한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 바로 학술자료팀이 일하는 곳이다. 대학도서관 평가 1위를 차지한 학술정보관은 우리학교의 자랑이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술정보관의 숨은 주역, 학술자료팀의 이성민 팀장을 만났다. 학술정보관은 도서 및 전자책을 구입, 도서정리, 기증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이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양의 책들을 학교 구성원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성민 팀장은 “학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라고 말했다.

학술정보관의 자료는 새로이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증을 받기도 한다. 이성민 팀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36,763권을 기증받아 이중 우리학교에 없는 도서는 장서로 편입 중이고, 그 외 잉여도서는 주변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술정보관은 2010년 대학도서관 평가에서도 1위(지역사회 및 대외협력 활성화 분야)를 차지하고 지난해 대학평가 인증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그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 성복구와 2010년도에 맺은 MOU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한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다. ‘학술정보관 지역주민 개방’은 4년째 무탈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진행과 학술정보관 이용실적이 반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학술정보관은 최근 4년간 국가로부터 두 차례 인정받았지만, 한성대 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그 자부심이 크다. 이성민 팀장은 “지난해 진행했던 학술정보관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지나질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게되어 감사드린다”며 “한성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 학술정보관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술자료팀은 학교 구성원을 위한 신속한 자료 지원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만약 대출하려는 도서가 아직 ‘준비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학술자료팀에 ‘우선 정리’를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팀장은 “학술정보관이 한성대 학생들이 더 멋진 미래

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현재 학술정보관과 열람실을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스타디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고 전했다. 빠르게 다가오는 2학기 한 번 더 새로워질 학술정보관을 만날 수 있다. 이성민 팀장은 학술자료팀의 직원, 조교, 근로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맡은 역할도 설명해 주었다. 그만큼 학술정보관과 학술자료팀에 애정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을 학술자료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재원기자 1236047@hansung.ac.kr

동정란

**우윤환(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우 교수는 형상모델링 분야에 있어 권위있는 SCI 논문지인 Computer-Aided Design 저널 2014년 3월호에 「Abstraction of mid-surfaces from solid models of thin-walled parts: A divide-and-conquer approach」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2013년 2월 『교육학의 이해(교육인문을 위한 지침서)』(동문사) 저서 출간했다. **이창원(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총회에서 행개련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낙산 tōon

대학생활의  
다양성



◆ **연재기획 - 나를 자극하는 소리를 찾아서**

① **소음 속에서 찾는 안정, 백색소음**

# 왜 카페에서 집중이 더 잘 될까?

**<편집자주>**

우리의 귀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소리. 소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대개 즐거움을 주는 소리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생각할 것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소리는 소음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소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적막한 고요보다 생활소음이 오히려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불면증·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음악과 자연의 소리가 아닌, 책장을 넘기는 소리, 필기의 사각거림, 타자치는 소리와 같이 아주 단순한 소리에서도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백색소음이란?**

백색소음이란 모든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소음으로, 핑크노이즈와 함께 대표적인 소음이다. 백색소음(화이트 노이즈)라는 이름의 유래는 태양광선으로 대표되는 백색광이 빛의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빛의 합이 백색광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소음의 합이 넓은 음폭의 백색소음이 되는 것이다. 백색소음은 단 하나의 소음이 아닌 다양한 소음의 합을 일컫는 것이다.

백색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슬리는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한다.

백색소음에는 진공청소기나 사무실의 공기정화장치, 파도소리, 빗소리, 폭포소리 등이 포함되어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인공적 소음과 자연적 소음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백색소음은 항상 들어왔던 음들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청각적 적막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백색소음의 효과**

실제로 한국산업 심리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백색소음이 학습효과에서 집중력 47.7%의 향상효과, 기억력 9.6%의 향상효과, 스트레스 27.1%의 감소효과 및 학습시간 13.6%가 단축된 결과가 나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 내에 백색소음이 있을 때, 불필요한 잡담과 움직임이 줄었다고 한다.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백색소음이 나오는 독서실이 있고, 수험생용 백색소음기가 있을 정도이다.

**소음과 집중의 순간**

시험기간을 맞은 대학생, 교내 도서관과 열람실만큼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 차는 곳이 있다. 바로 학교 근처의 카페이다.

카페 안은 커피 만드는 소리, 찻잔 소리, 노트북 자판을 치는 소리, 수도 소리로 가득하다.

카페에서 공부할 때 집중하는 사람들은 느낄 것이다. 웬지 조용한 독서실 보다는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도서관에서 집중이 더 잘되고, 방에서 혼자 과제를 할 때 보다 살짝은 소란스러운 카페에서 과제를 할 때 더 잘된다고 말이다.

반대로 카페와 같은 인공적 소음이 아닌, 자연적 소음을 생각해보자. 공원에서 바람에 얇게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면서 독서를 할 때면 책장이 무서운 속도로 넘어간다. 아무 소리 없이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과제를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두 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적 소음과 자연적 소음 속에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왜일까? 바로 백색소음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효과 때문일까, 공부와 과제를 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글을 집필하던 작가들이 카페를 찾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백색소음은 어디서 들을까?**

백색소음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집에서는 가전제품의 소음, 카페에서는 카페 소음을 말이다. 하지만 특정한 백색소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빗소리를 듣기 위해 마냥 비오는 날을 기다려야만 할까? 카페 소음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서야 할까?

굳이 소리가 나는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다양한 백색소음을 들려주는 앱과 사이트가 많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트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빗소리, 폭포소리, 파도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음뿐만 아니라 카페 소음까지 들을 수 있다. 앱과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집에서도 카페느낌, 숲속 느낌을 내며 집중할 수 있다.

백색소음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집중을 도와주는 소음이다. 백색소음은 우리에게 '의미'있는 소음이 아니기에 청각적으로 자연스레 묻히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서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특정한 소리, ASMR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백색소음 사이트 · 앱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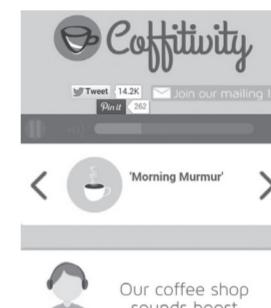
**1. WHERE SOUND**  
<http://wheresound.com>

현재 최고 카페소음 사이트. 집에서도 카페에서처럼 집중할 수 있다. 흥대, 강남, 신사동 카페의 소음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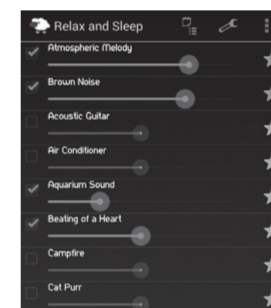
**2. Rainy Mood**  
<http://www.rainymood.com>

맑은 날에도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천둥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빗소리. 비오는 새벽이 그림자면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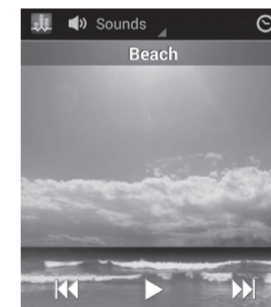
**3. Coffitivity**  
<http://coffitivity.com>

외국의 카페를 느끼고 싶다면 추천한다.



**4. Relax and sleep**  
구글플레이

기차소리, 장작타는 소리, 폭포소리, 빗소리 등 다양한 백색 소음이 모두 모여있다. 모든 소리를 섞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최고.



**5. White Noise Lite**  
구글플레이/앱 스토어

기본적인 백색소음 앱을 원한다면 추천. 잠이 안와 뒤척이는 밤, 백색소음 속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심리심리** 심리심리( )는 마음 속을 제대로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학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 외향성에 대하여

성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그 중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외향성'에 대해 알아보자.

**1. 외향성 VS. 내향성?**

외향성과 내향성은 하나의 축에서 양 끝으로 나뉘는 성격 특성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히 외향적이지도, 내향적이지도 않은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은 늘 한결같다기보다 어떤 때는 외향적이지만 어떤 때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러니 이런 내가 이상한 것 같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중간보다 좀 더 내향성이거나 외향성 쪽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눈여겨보자.

**2. 외향성이 높은 사람 = 사회성이 좋은 사람?**

흔히들 "외향성이 높은 사람 =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물론 외향적인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높은 사회성을 보이는 것은 하나 중요한 건 사회성이 외향성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외향성의 핵심은 '긍정적 정서성', 즉 보상 및 즐거움을 추구하는 특성이다. 즉 외향적인 사람들은 즐거운 무언가를 찾는데 늘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성이 좋은 것보다도 '심심한 걸 잘 못 참는다'는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예컨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봐도 무탈하게 잘 노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이 쑤시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나가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인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를 하게 된다. 즉 외향적인 사람들의 높은 사회성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결과에 가깝다. 관련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에는 '이 사람이 좋아서(liking)'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즐거워서(wanting)'같은 보상 추구 관련 동기도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 되기도 한다.

**3.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싫어하고 수줍음이 많다?**

흔히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앞서 외향성의 핵심은 '자극과 보상 추구'라는 점을 살펴봤었다. 이런 맥락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비교적 사람들을 덜 만나고 다니는 이유 역시 사람들 만나는데 싫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보다도 별다른 심심하지 않아서, 즉 '즐거움을 열심히 찾아 다니지 않아도 무탈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되려 더 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사회적 만남을 즐기는 것 자체는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얼마나 더 필요로 하느냐와 또 실행할 에너지가 충분한가가 다를 뿐이다(사회적 활동은 보통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오해이다. 모임에서 외향적인 사람처럼 활발하게 큰 목소리로 나서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움츠러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라던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같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라면 이는 성격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다.

**4. 외향성은 무조건 좋다?**

모든 성격특성들이 다 그렇지만 외향성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잘 얻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염병이 돌 경우 외향적인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소 목소리가 크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경우 외향성이 높으면 되려 실적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었다.

어떤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가? 만약 사회성이 낮아 성격을 개조해야겠다며 애꿎은 '성격 탓'을 하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사회심리학자 박진영 @maum0217>

## 가로세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④	⑦			⑤	⑧	
			⑥			
⑥			⑦			
		⑧				

**■ 이름:**

**■ 학과/학년/학번:**

**■ 연락처:**

**■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

**■ 한성대신문사에게:**

이번 가로세로 당첨자는 최다연(경영 1) 학생과 서범(한국어문 3) 학생입니다.

경당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 포럼소식

**제1회 해외주재원 HR 월례 포럼**

▶일시: 3월 21일 (금) 15:00~17:40

**▶장소:**

▶내용: 기업별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 / 참석자 간의 현안 및 실무 기반 학습의 토론의 장 마련

▶신청: 3월 20일 (목) 18:00 (현장 접수 가능) / 사전 접수: 3만원, 현장 접수: 5만원 / Tel. 02-318-4757

**2014 뉴스Y 심포지엄-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

▶일시: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14:00~

**▶장소:** 연합뉴스빌딩 17층 다목적홀

▶내용: '창조경제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의 미래 투자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참가하는 대학생에게는 '희망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우선배정

▶신청: 참가비 무료 / 뉴스Y 홈페이지 www.news-y.co.kr 또는 Tel. 02-398-7848



## 업사이클, 의식있는 소비를 할 때

### 1. 업사이클?

2, 30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다. 벼룩시장을 가기위해 길을 나섰다. 초행길인 동네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이 열리는 건물에 못 찾을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그 건물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본 건물이었지만 익숙했고 낯설지 않은 마음에 건물을 슬쩍 만져보았다. “어, 이건 컨테이너?”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상한 건물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건물은 업사이클 건물이었다.

업사이클(Upsycle)이란 더 이상 쓰임이 다한 물건을 새롭게 창작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쓰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이란 뜻의 리사이클(Recycle)에 향상을 뜻하는 업(Up)이 만나 업사이클이란 용어로 불린다.

앞서 기자가 마주한 건물은 쓰임을 다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다. 컨테이너는 무역에 있어 없어서 안 될 장비이지만 운송자재로 수명을 다하게 되면 엄청난 크기의 산업 폐기물이 되어 환경을 위협한다. 하지만 이를 업사이클링해 친환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컨테이너 건물뿐 아니라 업사이클은 주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쉽게 나타나고 있다. 커피가게의 벽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가방, 연필, 조망까지 다양하다. 버려진 일상의 흔한 물건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즐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생겨난 업사이클 제품을 하나 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 주위의 것으로 만

들어졌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혹시 이거, 그거야?” 하는 당신의 생각이 적중할 것이다. 이미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 제품을 애용하고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 중 하나는 ‘프라이탁’가방이다. 이 가방은 폐기하려고 버려진 트럭 위를 덮는 방수 천으로 업사이클한 스위스 수제품이다.

업사이클 제품은 버려진 제품을 소재로 쓰기 때문에 시중의 새 제품보다 저렴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히려 시제품보다 비싼 경우가 다반사다. 버려진 제품을 소재로 쓰기 위해서 디자인, 분류, 세척, 제작 등 90% 이상 전문가의 손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사이클 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매

력은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제품이라는 것이다. 쓰임을 다한 청바지로 만드는 파우치를 예로 들어보자. 소재로 사용한 청바지의 색, 손상정도, 문양 등부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앤디워홀의 ‘백 개의 수프강통’처럼 하나 같이 똑같은 상품으로 진열된 매장의 상품도 좋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곧 찾아올 봄의 순간을 미래의 노년에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업사이클 제품 애용하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백 개의 제품 중 하나가 아닌 이 세상에 하나 뿐인 리미티드 업사이클 제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로 리블랭크, 슬로우바이썬지, 에코파티메아리, 터치포곳 등이 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 2. 업사이클 전문가

## 에코파티메아리 황용운 팀장을 만나다

‘에코파티메아리’는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의 에코 디자인 사업국이다. 아름다운가게에 기존된 물품 중 오랜 기간 판매되지 못한 물품이나 버려지게 될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새롭게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에코파티메아리의 황용운 팀장을 만나 업사이클과 에코파티메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업사이클에 대해 처음 어떻게 알고, 시작하게 되었나요?

**황팀장** 이전에 광고대행사에서 일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소비를 조정하는 광고에 한계를 느꼈고 같은 직장 선배들에게 비취지는 저의 미래가 그들처럼 행복할 것 같지 않았습다. 그러던 중 아름다운가게에 대해 알게 됐고 지금까지 에코파티메아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 에코파티메아리의 업사이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황팀장** 먼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들어오는 (판매되지 않는) 가죽 자켓, 양복, 청바지, 와이셔츠, 아동 티셔츠와 소파공작 등을 통해 기부되는 자투리 가죽 등을 원재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과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업사이클 제품이 완성됩니다. 완성품은 아름다운가게와 에이랜드, 텐바이텐의 매장에 진열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됩니다.

**기자** 원재료가 쓰임이 다한 제품인 만큼, 업사이클 제품의 디자인이나 소재 면에서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황팀장** 제한적입니다. 원재료를 확보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재공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방이라도 소재나 분위기가 전부 다르니 업사이클 제품의 매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자** (에코파티메아리)업사이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황팀장** 업사이클 제품을 통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 사업이 지속가능해집니다. 지구를 지키는 착한 디자인과 재활용 디자인을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재활용 디자인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예쁘고 실용성이 있어야, 즉 경쟁력 있는 제품이어서 사람들이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업사이클의 매력, 에코파티메아리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황팀장** 업사이클은 요즘 ‘생활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생활용의 매력은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씨의 말처럼 관점의 변화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업사이클 산업을 만든 것입니다. 에코파티메아리의 매력은 환경 운동성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에코파티메아리는 아름다운가게의 재사용운동가이자 펼쳐야 될 수 없는 관계의 디자인 사업입니다. 아름다운가게



- 1 에코파티메아리사업 황용운 팀장의 모습
- 2 이동백으로 만든 '릴라씨' 인형
- 3 양복과 셔츠로 만든 '양복자켓도트백'
- 4 가죽 자투리로 만든 '드리트파우치'
- 5 자투리 실로 만든 '레인보우수트양말'
- 6 가죽 자투리로 만든 소품들

의 재사용을 넘어 업사이클 디자인으로 쓰임의 연장선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업사이클 디자인사 보다 재사용을 향한 운동성이 더 매력적입니다.

**기자** 앞으로의 에코파티메아리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황팀장** 한성대 학생들처럼 젊은 청년들이 에코파티메아리를 알고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에이랜드, 텐바이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업사이클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사회운동 형태로 바라보는 업사이클 디자인을 주제로 간담회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소비자 혹은 한성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얘기해주세요.

**황팀장** 개인적으로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회의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다란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교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패셔너블한 에이랜드를 애용하길 바랍니다. 대학생의 시작은 패션에 있고 패션의 완결은 에코시크(의식있는 소비)입니다. 에코시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브랜드는 물론 에코파티메아리입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 학교C

## 벚꽃소풍 준비해야지

\*\*\*벚꽃 개화 예정시기  
서울: 3월 26일 인천: 4월 3일 춘천: 4월 4일 강릉: 4월 21일

**1.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봄꽃을 즐기러 찾는 곳이다. 축제기간을 이용한다면 전문퍼레이드 공연단과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야간에도 사람이 많아 꽃과 사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기간: 4월 중(미정)  
장소: 여의서로 일대  
교통편: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나 6번 출구로 도보 5분, 2호선 당산역 4번 출구 도보 20분,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도보 20분 또는 버스 이용

**2. 강릉 경포대 벚꽃축제**  
벚꽃과 경포호의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어 전국각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근처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기간: 4월 10일~4월 16일  
장소: 경포대 일원  
교통편: 강릉시내에서 202번 경포대행 시내버스(20분 간격)  
문의: (관광과) 033-640-5807

### 3. 진해 군항제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진행한 것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꽃, 빛, 희망을 주제로 '36만 그루 벚꽃누리-함께하는 봄의 향연'이란 슬로건아래 주 최된다. 전야제, 추모행사, 특별행사 등 구성이 다양하다. 특히 전야제는 3월 31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기간: 4월 1일~4월 10일  
장소: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터리 등 진해 일대  
교통편: 진해벚꽃열차(무궁화호), KTX 이용(예매 및 발권은 3월 17일부터 가능) 또는 버스이용  
문의: (축제지원담당) 055-225-2341

## 우리가 무심한 사이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입춘이 훨씬 지난 오늘, 여전히 날씨는 춥고 모처럼 따스한 날이면 심한 일교차에 옷깃을 있는 대로 잡아당긴다. 원래 봄이 이랬다. 작년을 생각해본다. 매 계절을 맞을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 작년에도 뭐 이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건 우리 바뀌어가는 환경에 아슬아슬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슬아슬한 환경의 요인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지구환경의 정상적인 순환이란 요인과 인간에 의한 비정상적인 변화란 요인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기괴한 여러 기상징후가 '특별히 어느 요인에 의해 작용했는지' 아직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 지금의 지구 온난화가 절대적으로 태양의 변화와 같은 지구환경의 정상적인 순환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어서 '실국열차' 티켓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구 온난화의 상

당부분이 인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혁명을 전후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 넘치는 쓰레기 등에 의해서 말이다. 그렇다. 우리의 편리한 생활 그 자체다.

이제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미래의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실국열차'의 차상위층 살인들 따스한 햇빛아래 숨 쉴 수 있는 삶보다 나은 수 있을까.

지구환경을 위해 우리 다함께 한 겨울에 짙신신고(화학용품)를 쓰지 말고! 해화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자(화학연료사용을 줄이자는 말)이 아니다. 물론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앞에서 다루고 있는 '업사이클'제품 사용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에코침침'운동은 어떤가. 개인수저(에코 침침)를 가지고 다니며, 일회용 수저를 사용해야 할 때 대신 준비한 '에코침침'을 쓰는 것이다.

우리가 무심한 사이, 한번 망가진 환경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